

# 드뷔시, 소리에 색을 입히다

최정주 / 황영미

## I. 서론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는 인상주의 회화의 색채감을 음악에 잘 융합시킨 프랑스의 작곡가이다. 초기에는 바그너에 영향 받았으나 전통적인 화성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채로운 음색을 추구하여 인상주의 음악이라는 새롭고 독창적인 형식을 추구하였다.

드뷔시는 순간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중시하는 인상주의 회화와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음악은 인상주의 음악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후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20세기 현대음악으로 가는 기초가 되었다.

드뷔시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색채와 이미지를 보여주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상주의 회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요소인 화성, 5음음계, 운음음계, 교회선법, 복합 리듬, 섬세한 페달 사용법을 통해 파악하려고 한다. 아울러 드뷔시의 피아노 모음곡 'Petite Suite' 중 첫 번째곡 'En Bateau'로 그림의 세계를 융합시켜 예술 융합적 사고를 통한 피아노 교수법의 예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인상주의 피아노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본론

### 1. 인상주의 회화의 특징

인상주의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프랑스 미술계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예술사조이다. 동시대의 예술이라도 음악, 미술, 문학 등 각 장르간의 공통적인 연관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인상주의의 경우에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사조가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이러한 인상주의를 주도한 것은 인상주의 회화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순간적 인상의 표현

1874년 모네(Monet)가 그의 그림 「해돋이, 인상」에서 처음으로 ‘인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인상주의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모네는 새벽의 어둠이 일출에 의해 사라지는 일련의 모습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을 표현하고자 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평범한 일상으로서의 자연이었다. 화실, 즉 실내가 아닌 실외의 밝은 빛 아래서 소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 이전까지 화실에서 완성되었던 작품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받은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즉, 눈에 보이는 순간의 빛과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다.

모네 이전에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치중한 반면, 모네는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렸다.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총체적 공통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고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보는 바로 그 순간 대상에 비춰진 빛의 강도와 대기 상태 등을 반영한 이미지와 순간의 느낌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상상이나 묘사가 아닌 ‘인상’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 (2) 모호한 윤곽선 처리

인상주의자들은 회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윤곽선의 사용법이 실제로는 근거 없는 공상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오히려 색채들을 투명하게 화폭에 얹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선이나 형태는 추상적인 기하학적 존재일 뿐, 실제의 자연에는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형태와 선을 모호하게 처리하여 신비감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인상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3) 과학적인 색채분할법

그들은 색조의 분할이라든가 색채의 병치라고 하는 인상파 특유의 기법을 고안하였다. 팔레트에서 그림물감의 혼색을 피하고 순수색을 작고 짧게 칠하여 시신경을 자극하도록 하는 한편, 서로 다른 순수색(특히 보색관계에 있는 색끼리)을 세밀하게 병치시켜 색채의 선명함을 한층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서로 인접하는 색들이 보는 사람의 망막 위에서 혼연히 혼합되었다. 그 혼합된 색조는 팔레트 위에서의 명도가 떨어지는 혼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명함을 띠게 되었다. 신인상파는 인상파들이 경험 속에서 발견한 이 색채원리를 더욱 철저화 하였다.

## 2. 소리에 색채감을 입히는 드뷔시 음악의 특징

드뷔시는 혁신적인 화성, 5음 음계, 온음 음계, 교회선법, 복합리듬 등을 사용하였고 댐퍼 페달, 소프트 페달과 소스테누토 페달 등 다양하고 섬세한 페달링과 ppp에서 fff까지의 확장된 다이내믹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음향의 색채감을 표현하였다.

### (1) 화성(Harmony)

드뷔시는 화성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색채적으로 취급하여 불협화음, 병행화음, 미해결된 화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협화음이나 불협화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라베스크 (Arabesque)’ 마디 34-36에서는 색다른 음색과 분위기, 자유 전조를 위해 미해결된 화음을 연속으로 사용하였다.



<악보1>Arabesque No.1, m34-36.

### (2) 5음 음계(Pentatonic Scale)

달빛(Clair de lune)에서 사용된 Db-Eb-F-Gb-Ab-Bb의 5음 음계는 동양적인 색채를 나타내며 독특한 음색을 보여 주고 있다.



<악보2>Clair de lune, m12-14.

### (3) 온음음계(Whole-Tone Scale)

온음 음계는 모든 음정이 온음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반음정, 이끈음, 완전5도, 으뜸음, 딸림음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조성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돛(Voiles)’은 대부분이 온음계로 구성된 곡이다. 드뷔시는 마디 1-4에서 C-D-E-F#-G#-A#(Bb)의 온음음계를 사용하여 그가 추구하였던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악보3>Voiles, m1-4

#### (4) 교회선법 (Church Modes)

드뷔시는 ‘어린 양치기(Children's Coner)’ 마디 5-6에서 B-C#-D-E-F#-G#-A의 도리안 선법을 사용하여 색다른 음색과 이국적인 선율을 만들어 내었다.



<악보4>Children's Coner중 The little Shepherd, m1-4.

#### (5) 복합리듬

‘아라베스크 No.1’의 마디 8에서 11과 같이 왼손은 한 박을 2등분, 오른손은 3등분한 리듬의 동시에 연주하는 복합리듬을 사용하여 인상주의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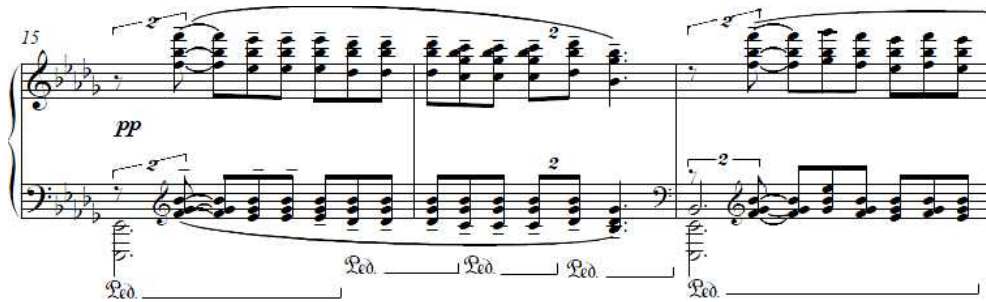
<악보5>Arabesque No.1 m8-11.

## (6) 페달

드뷔시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댐퍼페달, 소프트 페달, 소스테누토 페달, 소프트 페달과 댐퍼 페달을 함께 사용하는 페달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페달을 사용하게 된다. 드뷔시는 페달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실제로 자신의 악보에는 페달 표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것은 페달링이 연주 공간, 악기의 울림, 연주자의 기술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달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페달링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 또한 필요하다.

### 1) 댐퍼페달

댐퍼페달은 온음음계, 5음음계의 화성을 더욱 모호한 분위기로 나타내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달빛(Clairene)’에서 은은하게 흐르는 달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댐퍼 페달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악보6>Suite Bergamasque 중 Clair de lune, m15-17.

### 2) 소프트 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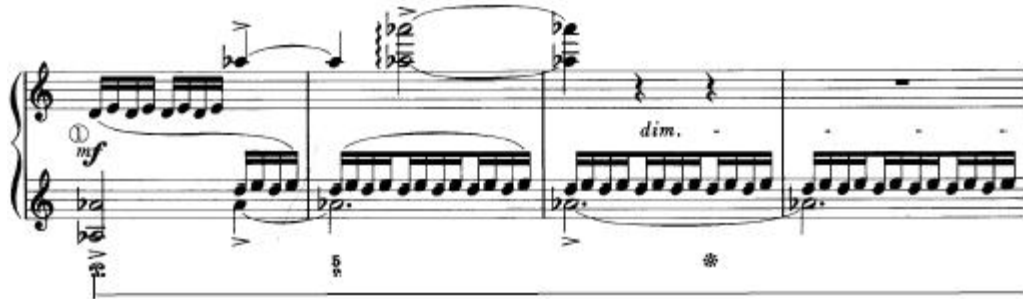
신비롭고 환상적인 효과를 위한 소프트 페달은 ‘달빛(Claire de lune)’의 마디 51-52에서와 같이 은은한 달빛을 상상하게 하는 아주 여리고 섬세한 ppp를 나타내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악보7>Suite Bergamasque 중 ‘Clair de lune’, m51-52.

### 3) 소스테누토 페달

소스테누토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베이스음들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윗 성부들은 윤곽이 잘 드러나도록 연주하면, 동양적인 미묘한 음향이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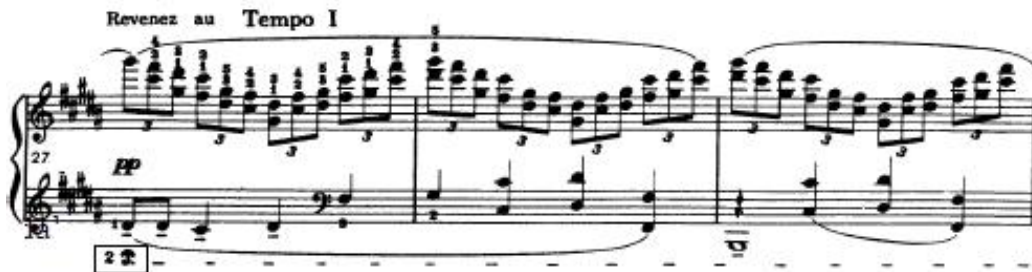


sostenuto pedal

<악보8>Pour le Piano 중 'Prelude', m74-77.

#### 4) 두 가지 동시페달

중소리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프트 페달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2담퍼 페달을 사용하였다.



1/2 pedal  
una corda

<악보9>Estampes 중 'Pagodes', m27-32.

### 3. 예술 융합적 사고를 통한 피아노 교수법의 예

#### - 연주곡: 드뷔시의 Petite Suite L. 65 中 En Bateau

드뷔시의 Petite Suite는 조각배로(En Bateau), 행렬(Cortege), 미뉴에트(Menuet), 발레(Ballet)의 4곡으로 구성 되어있다. 드뷔시가 1889년에 피아노 듀엣 곡으로 작곡하여 Jacques Durand과 함께 파리에서 초연하였으며 Henri Büsser가 1907년에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이후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연주되고 있는 곡이다.

맨 처음 곡 조각배로(En Bateau)는 모네의 '인상'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자.

이 곡은 A-B-A'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첫 A부분에서 온음계의 멜로디는 그림에서처럼 색다른 느낌의 이국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며 바다 위를 노 저어가는 조각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세콘도(Secondo) 부분의 16분음표는 바다의 잔잔한 물결을 표현한다.

**Andantino**

<악보10>Petite Suite 중 'En Bateau' m1-5

13-15마디에서 반주와 멜로디로 연주되는 복합리듬은 배의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악보11>Petite Suite 중 'En Bateau' m1-5

47-52마디에서의 u.c.사용으로 효과적인 음색의 변화를 가져옴으로 바다위의 그림자를 연상하며 연주해본다.

<악보12>Petite Suite 중 'En Bateau' m47-52

또한 A'부분에서 계속되는pp~p~pp의 다이내믹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속의 배가 저 멀리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연상하며 연주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곡은 위에서 언급했던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특징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지만 인상주의 그림과 연관지어 상상하면서 연주하기에 용이하다.

중급 정도수준의 연주자가 드뷔시의 인상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 III. 결론

같은 시대의 미술, 음악, 문학 등의 각 사조들은 상호간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하나의 통일되고 일치된 경향을 띠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인상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음악의 경우에는 그 추구하는 사상이나 그 표현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상주의 미술을 통해 인상주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인상주의적 미술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드뷔시의 음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상주의 회화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드뷔시의 음악을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상주의 회화와 음악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드뷔시 피아노 음악 연주에 그림의 세계를 융합시켜 드뷔시 연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피아노 연주와 교수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더 나은 연주를 위하여 예술융합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일조하였으면 한다.

예술 융합적 사고를 통한 피아노 교수법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대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의 이해와 연주에서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강효정(2015) 예술융합교육 Smart 8 2단계. 세광음악출판사
- 신인선 (2010). 드뷔시 바다. 서울: 음악세계.
- 김문경 (2012). 드뷔시 피아노곡에 나타난 인상주의 특징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김혜숙 (2006). 인상주의 음악과 미술의 연계성 수업 방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이성주(1997).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의 미학과 경향 및 연관성, 예체능 교육연구 Vol.2 13 춘천교육대학예체능연구소.
- 장근주 (2001). 드뷔시의 음악에 나타난 인상주의 화성 기법의 특징에 관한 고찰, 신음악논집 Vol.1, 신음악학회.



Debussy C.(1997) 세계음악전집 드뷔시 1. 2. 3권. 태림출판사.

Debussy. Petite Suite for piano duet, International Music Company.